

광주시, 재난 사망자 매년 30명씩 줄인다

화재·교통사고·자살·감염병 ‘사망자 감축 목표제’ 시행 안전의식 개선·시설점검 강화

광주시가 지역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나타내는 안전지수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화재,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등 주요 안전 4개 분야 사망자를 대폭 줄이는 사망자 감축 목표제를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재,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등으로 사망한 지역민은 모두 512명으로, 시는

오는 2020년까지 94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3년간 화재 사망자는 5명, 교통사고 사망자는 93명, 자살사망자는 334명, 감염병 사망자는 80명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내년 31명을 시작으로, 2019년 31명, 2020년 32명 등 연차별로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시민대표 등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안전문화 의식개혁 365 생활화 운동’(안전수칙, 안전사고,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생애 주기별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안전신문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관찰단, 빛고을지킴이, 자율 방재

단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안전신고 정신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3월까지의 우선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 1만여 개의 시설물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시설물 점검과 범·제도 개선사항, 위기관리 매뉴얼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동절기, 해빙기, 행락철, 우기철 등 취약시기별, 계절별 안전점검에도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분야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재난 상황별 초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등을 점검하는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5월 중에 실시하고, 풍수해(3~4월), 대설(11~12월) 등

재난 발생 시기를 고려해 2~3개월 전에 사전 대비 훈련을 하며, 산불·가축질병 등은 9~10월에 실시하는 등 월 1~2회를 목표로 재난대응훈련을 연 17회 실시할 계획이다.

한빛원전, 폭염, 지진피해 등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제작해 시민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 성과로 여름철 재난대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며 “2018년에도 광주가 ‘생명존중 사람중심’ 도시에 걸맞게 시민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성평등 교육·아이돌봄 확대 여성·청소년 10대 시책 발표

광주시는 19일 ‘여성·청소년·가족 모두 행복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2018년 10대 시책을 발표했다.

10대 시책은 ▲청소년 성평등적 진로 지원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부담 경감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청소년수련시설 대폭 확충으로 청소년활동역량 강화 ▲학교 밖 세상배움카드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확대 ▲여성·가족 정책의 연구인력 전문화를 위한 통탄 여성재단 역량 강화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직업 탐색 등을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평등적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한다.

또 지난 제19대 대선 주요 정당 공동공약으로 제시된 아동수당을 2018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 이하 0~5세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다.

부모들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공기정지기,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대폭 확대한다.

부족한 청소년 수련시설도 현재 5곳에서 9곳으로 늘리고,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충전비도 지원(9~12세 월 3만원, 13~18세 월 5만 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구 절벽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평생교육으로 시민 역량 키우자 (재)광주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15일 CMB광주방송 문화홀에서 광주시자원봉사센터, 광주도시공동체센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와 지역공동체 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성과·창의혁신 부문 우수 시책 선정

5·18 진상규명 노력·1700억대 연료전지 민자유치

광주시는 ‘37년만에 5·18 진상규명 절호의 기회(인권평화협력관)’와 ‘1700억대 연료전지 민자유치로 최대 시정속원사업 상무소각장 대체열원 해결(에너지산업과)’을 올해 가장 우수한 시책으로 선정했다.

시는 올해 추진한 주요 시책 중 성과와 창의혁신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올해의 Best 5’를 뽑았다. ‘올해의 Best 5’는 각 부서에서 응모한 총 44건(성과부문 25, 창의혁신부문 19)에 대해 1, 2차 심사를 벌여 부문별 5개 시책을 선별했다.

1차 심사는 실·국 주무과장이 맡아 10

개 사업을 선정하고 이어 시민, 민간평가단, 공무원, 시의원, 출입기자 등이 참여하는 설문조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의 2차 심사를 거쳐 ‘올해를 빛낸 광주시 Best 10대 시책’(부문별 5개씩)을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과부문 1위를 차지한 ‘37년만에 5·18 진상규명 절호의 기회’는 전일빌딩 헬기사격 신군부 소행 등 5·18 진상규명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5·18정신 헌법 수록 등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5·18진실규명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여야가 강력히

의지를 표명하는 등 5·18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책으로 분석됐다.

창의혁신부문 1위를 차지한 ‘1700억대 연료전지 민자유치로 최대 시정속원사업 상무소각장 대체열원 해결’은 연료전지 발전 및 상무지구 집단 에너지 열공급사업이다. 상무소각장 폐쇄로 인한 대체열원 개발로 향후 20년간 도시가스 지원금 460억원 및 유류부지 대부료 8억4000만원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예산 절감 및 집단민원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효과’

지난해보다 6.5% 감소

광주시가 올 한해 집중적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6.5%가 감량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12개월간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14만5962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15만6085t에 비해 6.5%가 줄어든 것으로, 공공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자치구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광주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 2015년에는 1일 537t으로 치솟아 광역시 승격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1인당 하루 평균 발생량도 0.36kg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발생량을 보였다. 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연 320억원에 달했으며, 공공 처리시설의 과부하로 인한 반입량 제한으로, 결국 자치구의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이 상시 발생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주택가 골목과 도로변에 악취를 풍기는 등 악

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30% 감량 운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홍보에 주력했으며 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자치구와의 협력을 위해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건설 우수 자치구 평가’에서 ‘음식물쓰레기 분야’ 비중을 30%에서 45%로 확대·강화했으며, 인센티브도 차별화했다.

공동주택 종량제(RFID) 보급사업도 확대해 5억4000만원을 투입해 270대를 1만6000세대를 대상으로 설치했다.

시교육청과 협력해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시 기후변화대응과 송용수 과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남도 고유의 음식문화를 계승시키면서 시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당분간 부정배출 방지 등 준법정신 강화정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실감콘텐츠 클러스터’ 설계 당선작 확정



광주시는 지난 18일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현상설계 심사 결과 (주)토문건축사사무소(대표 최기철)의 ‘The·nexus·Stream(‘사선작’ 작품)을 당선작으로 확정했다. 당선작 ‘The·nexus·Stream’은 남구 송하동 253-1번지 등 9필지 일원에 연면적 2만8673㎡,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설계됐다.

특히 중정을 배치한 시민광장 조성,

전면 촬영스튜디오와 연결한 미디어 파사드, 태양열 이용 시스템 구축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인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는 미래 핵심성장 동력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의 거점기반 구축과 영상, 미디어 등 첨단실감콘텐츠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